

고규홍의 '나무생각'



나무와 더불어 맞이하는 가을

은행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결에 노란 단풍의 '기미'가 담겼다. 머지않아 도시는 잎잎이 노란 형광등을 매단 은행나무들로 찬란하게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나무가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다는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나이테가 담긴 나무줄기가 오래전에 부러지고 썩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물에서 땅으로 생명이 올라와 자리 잡던 초기부터 살아온 식물이다. 무려 3억 년 전부터 빙하기와 같은 멸종의 위기를 거치면서도 더불어 살아온 생명체다.

이 오래된 은행나무의 연륜을 짐작할 만한 근거는 생김새에 있다. 새로 솟아오른 여러 개의 맹아지가 사라진 줄기를 둘러싸고 높직하게 자랐다. 맹아지만 나무의 뿌리에서 나무줄기 결로 돌아오는 새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나무로 강원도 삼척의 녹구리라는 작은 마을 뒤편 산 꼭대기에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있다. 무려 1500년 정도 살아온 나무다.

맹아지와 원 줄기는 분명히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생명체다. 줄기는 부러지고

썩어 없어졌지만 땅속의 뿌리는 살아 있었다. 애먼글면 삶을 이어 가던 뿌리는 죽은 줄기 결으로 맹아지를 돋워냈다.

에초의 형태를 잃고 시뭇하던 은행나무는 마침내 사람들의 보살핌에 힘입어 새로운 모습으로 크게 자랐다. 사람과 나무가 함께 한 세월이 무장히 흐르자 이제 나무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특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무릇 모든 생명이 그렇다. 고성된 형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생명은 없다. 때로는 찢기고 부러지면서도 생명은 모질게 살아남는다.

주변의 다른 생명체들과 연합하고 협동하면서, 달리 말해 더불어 살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상도 못한 성과를 이뤄 내는 게 생명의 역사고, 진화의 흐름이다.

이처럼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훨씬 큰 효력을 갖는다는 실재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시너지(Synergy)라는 말을 처음 썼다.

삼억 번 넘게 은행나무는 가을을 환히 빛깔로 밝혀 주었다. 은행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더불어 살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지닌 원초적 본능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기고

'어느 장애인의 죽음'을 읽고 -서미정 광주시의원납액



윤장현 광주시장

꾸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고려인,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 사는 세상. 물이 낮은 곳부터 채워지듯 어려운 곳부터 손길을 내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중증장애인이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제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수 빗은 그릇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허영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서미정의 의원납. 서의원님이 제게 보낸신 이 편지는 의정 단상에서의 호된 질책보다 더한 제책질로 저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들, 이들의 곁을 단 한시도 떨어져 지낼 수 없는 가족들의 버겁고 아픈 삶을 사회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합니다.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지만 복지 예산은 38%를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소홀히 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저는 '장애인이 행복하면 시민이 행복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의 일생의 신념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이 글은 어제 자 광주일보에 실린 서미정 의원의 '어느 장애인의 죽음'을 읽고 윤장현 광주 시장이 보낸 것입니다>

고백컨대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은 그 어떤 날카로운 무기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시민께 약속했던 저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제 집무실까지 찾아 오셨습니다. 이들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료칼럼

해외여행 전, 꼭 준비하세요!



조수경 광주기독병원 감염내과 과장

야 할 정도로 아프고, 0.3%는 입원을 하게 되며, 10만 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경우 우도 생긴다.

예방약의 종류와 복용기간이 달라진다. 예방약은 종류에 따라 여행 1~2주 전 복용을 시작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벗어나 후에도 1~4주까지 복용을 지속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토병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대다수의 여행객은 이에 대한 면역력조차 없다. 따라서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뎅기열이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고, 태국에서는 물이나 토양에 서식하는 유리저균에 의한 질병 발생이 우기 이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모기 매개 질환인 치쿤구니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약은 없으므로 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질화에 따라서는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라리아, 황열, A형간염, 홍역과 같이 약이나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것도 있다.

여행지의 최신 질병유행 정보는 미국 CDC (wwwnc.cdc.gov/travel)나 국내 예방약의 종류와 복용기간이 달라진다.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행지에 따른 질병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약이나 예방접종을 받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예산 확보 '호남 홀대' 타령만 할 때 아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면서 광주·전남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당은 광주·전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돼 호남 홀대가 재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알고 보면 기준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호남 홀대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종종 호남 SOC 예산을 영남권과 비교하는데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예산이 영남권에 치중된 결과 건수가 많았고 이는 또한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영남권 예산 총액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으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총액만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고 '호남 홀대' 타령만 늘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역대 과거 정부에서 호남 홀대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를 어느 정도나마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예산 문제를 놓고 한두 개 수치만으로 정변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반영 건수가 중요하다.

광주·전남 내년 사업비는 광주의 경우 229건에 1조7803억 원으로 올해보다 139억 원 늘었다. 전남도는 769건, 5조5033억 원이 반영돼 892억 원 증가했다. 그럼에도 SOC 예산은 1조91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8% 줄어 전국(20.0%)에 비해 감소 폭이 크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새 정부 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 해는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의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프렌들리(friendly) 호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하지만 장기간 추진되는 SOC는 한번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반영 건수가 중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29건 신청에 22건(75.9%)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30건 중 27건이 포함돼 반영률이 90%였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경우 착공 지연으로 1350억 원이, 광주순환도로 제2구간 건설은 민원과 보상 문제로 250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다. 이월된 예산은 어차피 차기 연도에 집행될 것이기에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

5·18사적지 흥남순 가옥 매입 서둘러야

민중화운동의 대부 고(故) 흥남순 변호사의 가옥이 최근 5·18사적지로 지정됐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천으로 빗물이 새들어오는 등 가옥 전체가 누그러져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사적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옥부터 매입해야 하지만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한다.

사들의 사랑방 격인 '민주의 집'으로 조성하려 했지만 건물 면적이 좁은 데다 노후화가 심하다는 이유로 포기했었다. 시는 우선 5·18사적지임을 알리는 지정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원·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야 인사와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흥 변호사 기리는 흥남순기념사업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0월께 기념사업회가 창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념사업준비부와 광주시는 조속히 흥 변호사의 가옥 매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동구 공동에 위치한 흥 변호사의 가옥은 5·18 학생 당시 재야 인사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를 했던, 민주인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 역사적 장소이다. 광주시는 애초 지난 2013년 흥남순 변호사의 가옥을 광주 지역 민주인

Advertisement for 'No Equal Drum' (無等鼓) featuring a drum icon and text about labor strength and social issue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